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신연우**

【국문초록】

제주도 곳의 대표적 의례인 초감제에는 무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들어 있다. 〈베포도업침〉의 자연-인간의 문제와 〈천지왕본풀이〉의 인간-인간의 문제의 차이가 있고 그 해결의 서사는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처음의 상황인 천지개벽은 창세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독립적인 화소이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창조 또는 창세이다. 해와 달이 둘씩 있다거나 기껏 만들어놓은 지상에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세가 인간에게 불완전한 것이며 창세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이나 불로 세상을 징치하는 신화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천지재창조신화라 할 수 있다. 일월문제 등을 천지왕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상녀와 혼인하여 아들 형제를 얻는 내용인 해결 시도와 해결방안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다. 성장한 아들 형제가 일월문제를 수명장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다. 다음으로 아들들이 이승을 놓고 경쟁하여 결국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한 결과 이승에 악이 지속되고 말게 된 것은 결과이다. 이러한 서사구성을 간략히 '1. 천지개벽, 2. 천지 재창조 필요, 3. 아들 형제 탄생, 4. 아들형제가 문제 해결, 5. 이승법 마련' 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천상의 존재는 인간 현실과 다른 차원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문제를 천상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적이면서 천상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지상적인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14-0303).

** 서울과학기술대

요소는 지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갖기 위해서이고 천상적인 요소는 지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를 갖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와 지상에서 고난을 겪고 사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지상에서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천상의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아는 것은 자연의 창조와는 다른 인간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 자연의 창조를 모방하지만 필요한 것은 인간 사회의 건설이다. 영웅의 최종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초감제 신화를 통해서 제주도를 넘어서는 신화론을 점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창세신화, 영웅신화, 입사식, 문화

차례

1. 머리말
2. 자료의 양상
3. 서사구조 재구
4. 서사구성 항목의 분석
5.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접맥
6. 맺음말

1. 머리말

제주도 곳의 첫머리에 놓이는 초감제는 전체적으로 교술무가이지만 그 가운데 <베포도업침>의 일부와 <천지왕본풀이>는 서사무가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천지개벽 신화여서 더없이 소중한 자료이기도 하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다양한 각편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공통된 화소를 가지고 있고 일정하게 유형화할 수 있게 전개되고 있다. 또 어떤 각편은 초감제 안에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나누기도 하고 나누지 않기도 한다. 초감제라고 하면서 <베포도업침>의 내용만 있기도 하다.

<베포도업침>에서 형제가 일월조정하는 내용을 <천지왕본풀이>에서 상세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¹⁾ 그러나 초감제에서 베포도업침은 창세신화의 면모가 뚜렷한 것과 달리, <천지왕본풀이> 신화에는 오히려 영웅신화의 모습으로 전이되는 양상이 뚜렷하기도 하다.²⁾ 이런 점에서 이 두 편의 신화들은 하나로 전해지기도 하고 둘로 전해지기도 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1)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251면.

강소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호, 탐라문화연구원, 2008, 266면.

2)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62면.

된다. 이 두 서사물은 창세신화적 면모와 영웅신화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면모가 둘로 분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둘을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이 신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발상임을 논하고자 한다. 단적으로 영웅신화에서 영웅의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 근원은 창세신화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 둘이 연결되는 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웅이 영웅 되는 것은 창세의 근원을 되풀이하는 동시에 창세의 원리를 내재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임을 제주도 창세신화를 통해서 구체화 할 수 있다.

본고에서 필자는 이런 구상 하에 제주도 창세신화의 구조와 구성 양상을 재조명하고 그 논리와 의미를 천착해 보고자 한다. 임석재³⁾, 현용준⁴⁾, 서대석⁵⁾ 등의 연구 성과가 여럿 축적되었지만 여기서는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만 거론한다. 김현선은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서로간의 관계를 해명하고,⁶⁾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가 천지혼합에서 천지가 갈라짐, 거인신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세상과 저세상을 차지함, 인간 세상에 선과 악이 존재함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통해 창세신화가 철학적 논의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⁷⁾ 강소전은 기존의 연구가 신화 문학 중심이기에 창세신화가 교술무가로 변하고 말았다는 시각을 보인 것에 반론을 제기했다. 의례의 면에서 보면 <베포도엮침>은 천지 인문 사향의 발생을 말하고, 그 안에서 월일광도업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천지왕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⁸⁾

3) 임석재,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비교민속학』 제7집, 비교민속학회, 1991, 147면, 151면.

4)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262면.

5)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18면, 27-28면.

6) 김현선,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85-132면.

7) 김현선,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앞의 책, 257면.

이수자도 의례 순서를 따라가면서 〈베포도업침〉이 우리 민족이 창안한 천지창조신화이며 그 안에 〈천지왕본풀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⁹⁾ 김선희는 〈천지왕본풀이〉보다는 〈베포도업침〉에 천지개벽, 일월성도업, 일월조정, 인세차지 경쟁의 창조신화적 성격이 잘 나타난다고 하며, 둘인 것들에 주목하여 대극의 갈등과 경쟁이 의식의 출현을 위한 정신활동이라고 심리학적 해석을 펼쳤다.¹⁰⁾

김남연은 천지개벽담 이후의 장자정치담과 천지결연담이 인간세상의 혼돈과 그 정리를 위한 천지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며 영웅신화의 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¹⁾ 박종성은 우리나라 창세신화의 변천과 계통을 고찰하고 제주의 것은 본토에서 유입되었으며 제석본풀이와 같은 양상으로 변하다가 중단되었다고 보았다.¹²⁾ 당신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신계의 서수암이 집단이 수신계의 수명장자 집단에 복속되는 사정과, 천신계의 천지왕 집단이 서수암이 집단과 연합하여 대결하여 승리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¹³⁾ 이 과정에서 박종성은 “창세서사시에서 영웅서사시로의 변천과 영웅서사시의 창세서사시 수용이라는 두 축”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¹⁴⁾ 그밖에 김현선이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대립은 사회적 분부 관계를 드러내면서 사회적 악과 우주적 선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보여주는 요소이다. 천지왕과 총맹부인은 우주적 차원의 천부지모 화합을 보여주면서 제 1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8)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앞의 책, 266면.

9)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49-159면.

10) 김선희,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영주어문』 제22집, 2011, 86면.

11) 김남연, 「한국 창세신화 유형담의 전승과 그 변이」, 연세대 석사논문, 1995, 42-43면.

12)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301-338면.

13)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6집, 1998, 373면.

14)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356면.

2세대의 갈등을 드러내는 것으로 매개작용을 하는 것”¹⁵⁾이라고 지적한 정도가 본고와 연관된다고 보인다. 본고는 우선 자료 열 한편을 들어 그 내용을 제시하고 내용의 동이점을 통해 구성적 특질을 추출하고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창세신화와 영웅신화가 접맥되는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연구는 특히 김현선이 1세대와 2세대의 문제와 갈등을 언급하고, 김남연과 박종성 등이 창세신화와 영웅신화를 관계 지어 보고자 한 작업을 잇는다. 이를 위해 우선 자료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 자료의 양상을 검토하고 서사 구조를 살피는 순서로 논의한다.

2. 자료의 양상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 무가 자료는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김현선이 한 자리에 모아 주었다.¹⁶⁾ 순서대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밖에 표의 마지막 11번에 든 것은 서순실 심방 구연의 시왕맞이 현장을 그대로 채록한 자료이다.¹⁷⁾

번호	무가 이름	구연자	전송지	채록자	발표지	발표연대
1	초감제본 천지왕본			문창현	풍속무음	1982
2	초감제 천지왕본풀이	박봉춘	서귀포	아끼바 외	조선무속의 연구	1937
3	초감제 천지왕본			김두원	제주무가집	1963

15) 김현선,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앞의 책, 257면.

16) 김현선, 『제6부 창세신화 자료의 소개와 해설』, 『한국의 창세신화』, 앞의 책, 385-481면.

17)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 대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247-250면.

4	천지도업	고대중	구좌면	장주근	한국의민간신앙	1973
5	베포도업침	강일생	한경면	임석재	제주도 17호	1974
6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안사인 정주병	조천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1980
7	천지왕본	이무생	표선면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 풀이사전	1991
8	초감제	고창학	안덕면	진성기	상동	1991
9	초감제	강태옥	서귀읍	진성기	상동	1991
10	초감제	김병효	한경면	진성기	상동	1991
11	초감제	서순실	조천읍	강정식 외	시왕맞이	2006

각 구연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인다. 앞의 표에는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가 섞여서 쓰였다. 초감제의 내용으로 두 가지 서사가 있는 것이므로 둘로 나누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인다.

구연자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1. 문창현	천지개벽 해 둘 달 둘 뜨니 백성이 죽어서 옥황상제가 영을 내리니 대별왕 소별왕이 일월 조정	수명장자아버지 혼, 제사 못받음 천지왕이 박우왕 집에 유숙. 수명장자, 모래 반 섞인 쌀. 천지왕이 총명이, 결합. 본메 천지왕이 수명장자 징치 아들 형제 하늘로 아버지 찾음. 수수께끼-소별왕이 이김. 꽃피우기-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
2. 박봉춘	천지가 개벽 동서남북 청의동자 눈으로 해 둘 달 둘을 만든다. 인간이 살 수 없어 천지왕이 강림하여 바지왕과 배필을 무어다가 바지왕이 잉태, 대별왕소별왕 소사났다. 심오세에 아버지 찾아 하늘로 가자 아버지가 무쇠활을 주어, 일월 조정한다.	수명장자-천왕께 향하여는 날 잡아갈 자가 있 으리야 호담. 천지왕이 징치하나 실패. 천지왕이 백주할망 집 유숙. 수명장자에게 쌀 얻어서 식사. 백주노파의 딸과 합궁. 대별왕 소별왕이 옥황에 올라 아버지 찾는다. 수수께끼, 꽃피우기에서 동생이 속임수로 세상 차지, 수명장자 징치. 소별왕은 선악 구별하고 인간차지.

3. 김두원 필사	천지개벽. 반고씨가 나서, 해 둘 달 둘, 사람들이 죽는다. 활 잘 쏘는 유은거처를 불러다가 일월을 조정.	쇠맹이 아버지, 제사 못받음 천지왕, 쇠맹이 정치 실패 바구왕 집, 바구왕 총명부인 딸 서수암이 합궁. 대별왕소별왕 형제, 멸시받음. 아버지 찾아가 부자 확인. 소별왕이 예숙제끼기, 꽃피우기 속이기로 이승 차지. 이승엔 해 둘 별 둘, 도둑. 나무가 말하고, 귀신 생인 대답하는 세상. 소별왕이 저승 형에게 부탁. 형이 일월조정, 나무들 말 못하게 하는 등 질서 잡는다.
4. 고대중	천지 개벽. 인간사람과 만물이 솟아나니 밤도 낮도 일무궁. 천지왕이 갑오왕에 장가들 때 지보왕이 기쁜 마음으로 해도 둘 달도 둘 보내니 사람들이 죽는다. 천지왕 아들 대별왕 소별왕이 일월을 조정한다. 천지왕이 소별왕에 저승내주니, 수수께끼. 꽃피우기 경쟁하여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 차지한다.	
5. 강일생	천지 개벽. 반고씨 청의 동자 이마의 눈 둘로 해 둘 달 둘, 인간들 죽음. 천지왕 아들 삼형제 태어난다. 소별왕 수수께끼 제안, 꽃 경쟁으로 이김. 소별왕이 말은 인간세상은 해가 둘 달이 둘, 어지러운 세상. 형에게 가서 도움 청한다. 대별왕이 큰 법을 마련해준다. 일월조정, 귀신 생인 가름, 짐승도 말 못하게 된다.	
6. 정주병	천지 개벽. 세상이 열리고 해 둘 달 둘로 인간 죽음. 옥황 천지왕이 서이섬지땅 호침을 두어 대별왕 소별왕으로 활 쏘아 일월조정.	해 둘 달 둘로 인간이 죽어감. 천지왕이 지상 총명부인에게 유숙. 빌려온 쌀로 밥, 돌이 씹힌다. 수명장자 가족의 악행이 드러난다. 벼락 우레 화덕진군 보내어 수명장자 집을 불 사른다. 천지왕이 총명부인과 합궁. 대별왕 소별왕 멸시당하고 아버지 찾기. 하늘 옥황에 올라 아버지에게 활과 화살을 받아 일월조정. 수수께끼, 꽃 속이기로 소별왕이 이승 차지.
7. 이무생		천하거부 쉬맹이 아방. 천지왕이 정치 실패, 천지왕 바구왕 집, 서수암이 합궁. 대별왕 소별왕이 옥황 올라 천지왕 만나 어린애 흉내내기, 다시 태어나기 의례.

		소별왕이 예수제끼기, 꽃 피우기 속임수로 이승 차지. 이승 오니, 해도 둘 달도 둘, 악이 많고 귀신 생긴 대꾸하고 무질서. 저승 가서 형에게 도움. 형이 큰 법 마련, 일월 조정 질서 마련해줌.
8. 고창학	도수문장이 천지를 나눈. 청의동자 반고씨 이마에 동자 둘로, 해 둘 달 둘. 귀신 생인 혼합, 사람 죽음. 대별왕 소별왕이 생겨나 귀신 생인 나누고 일월조정. 소별왕이 인간 도업한다.	
9. 강태옥	하늘, 땅이 열린다. 반고씨 이마에 동자 둘씩 있어 해 둘 달 둘이 된다. 인간이 살 수 없어 활선생 거저님이 일월 조정한다. 성인들 나서 문화 가르침.	
10. 김병효	하늘 땅 열린다. 반고씨 나와 해 둘 달 둘 세상에 띄운다. 인간 죽어가자 유운거저 불러다가 일월조정. 성인들 나서 문화 가르침.	
11. 서순실	천지개벽과 일월, 별 도업 등	천지왕이 총명부인 찾아옴, 제인장젓집이서 모래 섞인 쌀 빌려 밥. 아들 형제 탄생. 수수께끼, 꽃피우기, 속이기, 소별왕이 이승차지하여 이승은 악.

이를 통해 두 신화의 특징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베포도업침>은 천지개벽과 우주 질서를 다룬 신화이다.
둘째,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의 질서의 근원을 다룬 신화이다.
셋째, <베포도업침>의 각편 중에는 <천지왕본풀이>와 천남지녀 화소, 일월조정 화소를 공유하는 것이 있다.
넷째, <천지왕본풀이>는 악인 수명장자 징치와 일월조정을 다룬다.
다섯째, <천지왕본풀이>에는 수명장자 징치에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이 있다.

여섯째, 아들 형제가 일월을 조정한다.

형의 도움으로 일월을 조정한다.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일곱째, 소별왕의 속임수로 인해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

여덟째, (일월조정 외에는) 소별왕이 이 세상의 질서를 가져왔다.

첫째 둘째 특징을 보면 이 두 신화는 다른 신화이다. 그래서 고창학, 강태욱, 김병효 구연본은 <베포도업침>만 있고, 문창현, 박봉춘, 김두원, 안사인-정주병 본은 둘이 따로 전해진다. 이무생 본은 <천지왕본풀이>만 있다.

셋째의 특징을 보면 천남지녀와 일월조정 화소를 통해 두 신화가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실제 곳에서 <베포도업침>의 일월조정 부분을 <천지왕본풀이>가 상세하게 확대 진술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천지왕본풀이>가 천남지녀에 의한 대별왕 형제 화소를 본디부터 가지고 있었다고만 볼 수는 없다. <베포도업침>만 있는 고창학, 강태욱, 김병효 구연본에는 천지개벽 후 생긴 해 둘 달 둘을 대별왕 또는 유은거저가 활로 쏘아 조정했다는 내용뿐이다. 여기에 <천지왕본풀이>에서 하늘의 남성과 지상의 여성의 결합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야기는 고구려 주몽신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를 참조할 때 고창학 등의 <베포도업침>이 원래의 모습일 수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베포도업침>에서 천지왕이 지상녀와 합궁하는 것은 대별왕소별왕의 근원 해명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오히려 <천지왕본풀이>의 영향을 받아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에서 여섯째 특징을 보면, 수명장자를 천지왕이 징치하는 것이 있고 실패하여 후에 아들이 징치하는 것이 있다. 천지왕이 징치하면 아들들은 이승차지 경쟁을 하게 되고, 실패하면 천지왕이 지상 여성과 합궁하여 낳은 아들이 징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아들들이 일월조정까지 하기도 한다.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한다는 것과 실패하여 아들이 징치한다는 것 사이에는 논쟁거리가 있다. 일월조정을 천지왕이 한다는 것과 아들이 한다

는 것 사이에도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이에 관해 후술한다.

일곱 여덟째 특징은 이 세계의 모순을 잘 드러낸다.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질서와 악이 공존하는 이 세계의 모습을 해명하자는 것이다. 소별왕의 세계는 일월조정할 능력도 없고 순선하지도 않다. 그러면서도 나름대로의 질서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연결하여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하나로 이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시간에 쫓기거나 하여 <베포도업침>만 연행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실제로 제주도 곳의 초감제에서는 <베포도업침>에 이어 <천지왕본풀이>를 구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둘로 구분되면서도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다.

김헌선은 “천지개벽의 신화소와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소는 서로 독립되어 구송”되며, 수명장자 정치 화소는 천지개벽 화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어 둘은 배타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¹⁸⁾ 이수자는 <천지왕본풀이>를 <베포도업침>의 한 부분으로 정리하였다.¹⁹⁾ 강소전도 베포도업을 치는 과정의 한 부분이 <천지왕본풀이>로, “월일을 조정한 신의 이야기를 특별히 풀어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²⁰⁾

그러나 <천지왕본풀이>를 <베포도업침>의 한 부분으로 말하기에는 박봉춘 안사인/정주병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질성이 너무 크며, 둘을 배타적인 것으로 보기에는 동질성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수자 강소전처럼 이해하는 것은 서순실 본처럼 천지개벽의 내력을 진술하는 교술인 <베포도업침> 중에서 한 부분을 <천지왕본풀이> 서사로 확대한 것이며, 김헌선처럼 보는 것은 박봉춘 안사인/정주병 본처럼 <베포도업침>도 서

18)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위의 책, 124면.

19) 이수자, 앞의 책, 157면.

20) 강소전, 앞의 논문, 앞의 책, 265면.

사, <천지왕본풀이>도 서사인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다른 각편들은 흔히 교술인 <베포도업침>에 미량의 서사적 내용이 포함되고, <천지왕본풀이>는 서사만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양상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다양한 자료를 일관되게 이해할 방안을 찾아보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11번 자료인 동북 정병춘택 시왕맞이 굿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다른 자료와 달리 굿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구술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2006년 4월 18일-20일 동안 사흘간 벌어진 시왕맞이 굿에서 초감제는 두 차례 연행되었다. 첫날 굿의 첫머리에서 한 차례, 둘째날 시왕맞이에서 한 차례이다. 그런데 전체 굿머리의 초감제에는 <베포도업침>에 <천지왕본풀이>가 없다. 시왕맞이의 초감제에는 <베포도업침> 속에 <천지왕본풀이>가 구연되었다.

이는 우선 앞에 소개한 자료들에서 어떤 것은 <베포도업침>만 있고 어떤 것은 둘 다 있는 현상을 이해하게 해준다. 심방은 경우에 따라서 <베포도업침>만 하기도 하고 <천지왕본풀이>를 넣어서 하기도 한다. 예외인 이무생 본은 <천지왕본풀이> 부분만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강소전도 <천지왕본풀이>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심방의 말을 전한다.²¹⁾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천지개벽신화가 들어 있는 <베포도업침>은 왜 부르는가, 굿에서 천지개벽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이다. 서순실이 구연한 굿 첫머리의 초감제는 굿의 목적을 말한다.

21) 같은 책, 266면. 그 까닭에 대하여 심사위원 한 분은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해주었다. “굿의 첫머리에서 벌이는 초감제는 맞이굿의 초감제보다 규모가 작은 재차이다. 맞이굿 가운데는 시왕맞이가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오늘날 <천지왕본풀이>가 시왕맞이의 초감제에서 주로 구연되는 까닭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정에 따라서 구연하기도 하고 아니하기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동복 나주 정씨 집안에, 딸로 소생헤연, …… 마흔 혼 설 나는 헤에, 남
대 죽대 즈죽대에, 목으로 피가 터지고, 피골이 양지(낭자) 돼고, 영 헤여
그 때에 이 신병을 만난, 백개 신네안티 문복단점 지난, 피 부튼 입성 입은
영혼 놀낭내 놀핏내가 탕천헛덴 영 허난에, …… 스삼스태 당허난 하늘 ㄱ
뜬 친정부모 아버지 스삼스태에 혼 날 혼 시 백삼십삼 명, 이 세상을 떠나
난 이 딸에 원혼 돼여전²²⁾

즉 이 곳은 정병춘 씨 조상과 함께 희생된 4·3 사태의 영혼들을 함께
청하여 위로하고자 한 곳이다. 이러한 사연을 말하고 하늘의 여러 신들을
부르며 하강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곳을 하기 위해 인연을 찾
고 택일을 하고 곳을 시작하게 된 사연이 바로 이어진다.

흔 번 곳 헤보젠 ㄱ흙 먹언, …… 어딜 가민 연연 좇이코, 좇이멍 물으멍
쫓는 게 신이 성방 좇아, 작연 육섯들 초싱 연분예, 날 택일을 받아건, 연양당
주 오란 놓아 두어수다. 천왕왕도 느린 날, 지왕왕도 느린 날, 인왕왕도 느린
날, 신전님은 하강일 즈순 복덕일을, 받으난에 병술년 쳇명 삼월 스무하루,
어젯날 신의 성방 몸을 받은 연양당줏문 열렸수다. 몸주문을 열렸수다.²³⁾

연양당줏문은 심방이 신을 모신 곳이다. 이곳이 열린다는 것은 신들이
내려오고 곳을 시작한다는 말이다. 곧 이어 장구를 치면서, “천지가 혼합시
도업입네다에” 하며 천지개벽의 신화로 들어간다.

곳의 처음을 천지의 처음인 개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엘리아데가
지적한 대로 세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문제의 근원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여
질서를 잡고 해결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천지개벽과 산베포 물베포,
별, 일월, 대별왕 소별왕 도업 등을 말하고 수인씨 신농씨 복희씨 등 중국

22) 강정식 외, 앞의 책, 37면.

23) 같은 책, 40면.

의 전설적 인물과 역사로 이어진다. 이어서 날과 국 섬김, 열명, 연유담음으로 계속된다. 이는 모두 교술이다. 그런가하면 둘쨏날의 초감제는 교술인 <베포도업침>을 하고 서사인 <천지왕본풀이>가 구송되고 다시 교술로 <베포도업침>의 후반부, 날과 국 섬김, 연유담음 등으로 길게 이어진다.

1995년 음력 2월 20일에 와홀에서 있었던 동이풀이의 초감제도 같은 성격이다. 김윤수 심방이 푼 초감제는 몸이 아프고 운수가 나빠서 집안 조상을 위하고 “시국 못만난 인간 떠난 친정 오라방 위해영 저승가는 길을 닦아 드리”고자 택일 받아 의논하여 “오늘 아침 대동 여러 몸받은 당췌문 열렸수다. 몸췌문 열렸수다” 하면서 신들이 “하감협서” 하고 청하면서 천지개벽의 <베포도업침>으로 들어간다.²⁴⁾ 이로부터 새드림까지 이어지는 상당히 긴 무가인데 모두 교술이다. 이 책은 <천지왕본풀이>는 이중춘 구송으로 따로 제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초감제의 전체적인 성격은 굿을 하게 된 사연과 장소와 사람을 말하고 신을 청하는 긴 교술무가라고 할 수 있다. 그 기본 성격은 천지개벽과 천지도업이다.

여기서 선행연구에서 지적한대로, 그 가운데 일부에서 <천지왕본풀이>만 특별히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⁵⁾ 교술인 <베포도업침> 중 일월조정을 해명하기 위한 서사가 <천지왕본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일월조정 화소만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 모두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베포도업침>에 천지개벽 시 해와 달이 둘씩 생겨서 그것을 소별왕대별왕 형제가 조정했다는 교술적 진술을 서사로 상세화한 것이 <천지왕본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베포도업침>은 교술이고 이 중 일월조정 부분만 구체화한 것이라는 선

24)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78-79면.

25) 강소전, 앞의 논문, 같은 곳.

행연구와도 일치하며, 왜 일월조정만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 모두에 나타나는지도 해결된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천지왕본풀이〉가 〈베포도업침〉을 상세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베포도업침〉이 천지개벽과 天地都業을 말하는 교술무가라면, 〈천지왕본풀이〉는 人文都業을 말하는 서사무가이기 때문이다. 초감제에서 창세의 천지도업을 말한 후 인세의 인문도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다. 〈천지왕본풀이〉는 〈베포도업침〉의 천지도업 중 일부를 상세화한 것이 아니라 원래가 인문도업을 말하는 것으로 초감제의 대등한 두 부분이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순실 구연본에는 일월조정 화소가 없다. 〈천지왕본풀이〉에도 단지 수명장자 화소와 이승차지 속임수만 있다. 이는 〈베포도업침〉은 천지도업, 〈천지왕본풀이〉는 인문도업의 성격만을 강하게 드러내는 자료라 하겠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는 〈베포도업침〉에도 서사적인 내용이 있고, 〈천지왕본풀이〉에 일월조정만 아니라 수명장자 이야기도 있고 이승 차지 이야기도 있어서 더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왜 이들 자료는 이토록 산만하게 전해지는가? 이 둘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 옳은가 다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3. 서사구조 재구

이런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 자료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먼저 〈베포도업침〉은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은 전편에 공통이다. 천지가 나뉘어 닭울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시간적 관념이 생기고 동서남북의 공간이 나뉘어 우주적 질서가 잡혀가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서순실 본

처럼 개벽만 강조하는 각편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늘에는 해와 달이 둘씩 생겨나게 되었다는 의외의 사태로 발전한다. 대다수 각편은 거인의 눈을 떼어내서 해 둘 달 둘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문제가 된다. 사람이 타 죽고 일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각편들이 있다. 해 둘 달 둘이 있어서 인간이 못 살게 되었다는 내용에 바로 이어서 대별왕 소별왕 또는 활 잘 쏘는 유은 거처 등이 해 하나 달 하나를 쏘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포도업침>의 천지개벽 화소는 일단락된다.

그런데 박봉춘, 안사인 본은 일월조정에 앞서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와 바지왕 또는 서이섬지땅 호첩과 부부를 맺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뒤의 대별왕 소별왕의 등장이 뜬금없기에 그 유래를 제시하는 서사적 안배일 수 있다.

다음으로 <천지왕본풀이>는 좀 더 복잡하다. 처음부터 악인이 등장하여 긴장하게 한다. 첫머리에 악인부터 나오는 것은 천지창조가 일단락되어 지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수명장자는 죽은 아버지가 제사를 받아먹지 못하게 하는 비인간적인 인물이다. 또는 하늘의 천지왕을 향하여 나를 못 잡아갈 것이라고 호언한다. 이를 징치하기 위해 천지왕이 지상으로 하강했으나 징치에 실패한다. 솔이 걸어 다니고 소가 지붕을 넘어다니고 하는 등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급기야 천지왕이 머리에 철망을 씌워 고통스럽게 하자 하인에게 자기 머리를 도끼로 깨버리라고 하는 지독한 놈이다.²⁶⁾

천지왕이 당하지 못하고 징치에 실패하고는 박우왕 또는 백주노파의 딸, 또는 서수암이라는 여성과 배필을 맺는다. 이는 지상의 여성을 통하여 대

26)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위의 책, 40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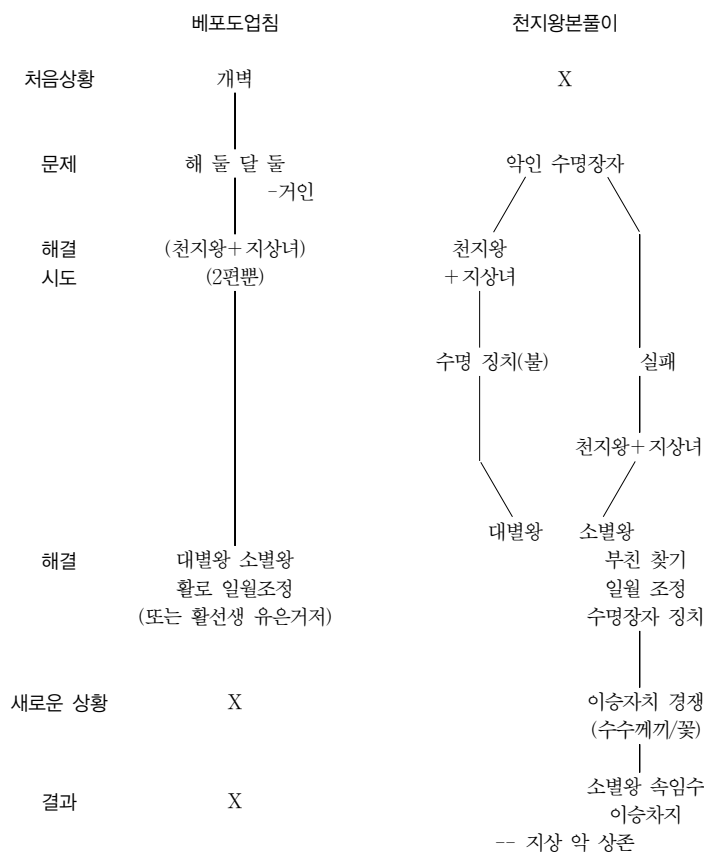
별왕 소별왕 아들 형제를 얻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창현, 정주병 본 <천지왕본풀이>에는 수명장자의 악행을 먼저 말하지 않고, 천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 총매이, 총매부인 집에 머물게 되는데 부인이 가난하여 수명장자 집에서 모래 섞인 쌀을 얻어 와서 그 악행이 드러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천지왕은 바로 그의 집을 불살라버림으로써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그리고나서 천지왕은 떠나고 지상의 여성은 아들 형제를 낳게 된다.

이제 다시 이야기는 지상의 아들 형제 이야기로 집중된다. 아들들은 서당 다니면서 멸시를 당하고 아버지에 관해 묻고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떠난다. 부친찾기 화소이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활로 이들은 수명장자를 징치하기도 하고 하늘에 들썩 있던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일월을 조정한다. 이것으로 하나의 서사가 완결된다고 하겠는데 이야기는 이어진다.

형제는 이승을 누가 다스릴 것인가를 놓고 경쟁을 벌인다. 수수께끼를 하기도 하고 꽃피우기 내기를 하기도 한다. 결국 형이 잠자는 사이에 번성한 꽃을 자기 앞으로 몰래 가져다 놓음으로써 소별왕이 억지 승리를 하고 이승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소별왕이 속임수로 세상을 가졌기 때문에 지상에는 살인, 도둑, 사기, 간음 등 각종 악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어느 각편이나 이 구도 속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신화는 닮았다.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먼저 <베포도업침>이 천지개벽의 내용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천지왕본풀이>가 이승의 악의 근원을 해명하는 신화라는 점도 명확하다. 그 사이에 두 신화는 천지왕이 지상 여인과 배필맺기, 대별왕 소별왕의 일월조정 화소를 공유한다. 개벽이 앞에 있고 이승의 악 유래가 마지막에 놓이면 나머지는 그 사이에 놓인다. 그래서 이 화소들은 위 정리의 왼쪽 항에

제시한 바와 같은 구조를 이룬다.

즉 “처음 상황 - 문제 상황 - 해결 시도 - 해결 - 새로운 상황 - 결과”의 순차적 구성을 이루는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된다. 그러면서도 <베포도업침>은 일월조정이라는 해결에서 이야기가 완결되는데 반해 <천지왕본풀이>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시 소별왕으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래서 지금도 지상에는 악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선악이 공존하는 이승의 현실은 지금도 이어지기에 이야기는 결말에 이르렀어도 의미하는 바는 지속된다. 작품 밖 현실세계로 이어지며 지속된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같이 부르기도 하고 따로 부르기도 한다.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내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베포도업침> 뒤에 이어서 <천지왕본풀이>를 부른대거나 또는 <베포도업침>의 일정 부분을 확대해서 <천지왕본풀이>로 부른대거나, 이 둘이 이어져 있다고 보는 의식은 분명하다. 이 둘은 두 개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천지개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사회의 악의 유래를 해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의 이야기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이면서 둘인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함께 초감제 아래 하나의 신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 둘을 하나의 신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가능할 것이다. <베포도업침>에서 천지왕과 지상여인과 결합하는 각편이 둘 뿐이고 일월조정하는 주체가 대별왕 소별왕이기도 하고 유은거처이기도 해서 하나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베포도업침>에서 분명한 것은 천지개벽이 있었고 그때 해와 달이 둘씩 생겼다는 이상상황까지라고 할 수도 있다. 거기에 지상에는 수명장자라는 악인이 있었고 천지왕은 지상으로 하강하여 지상 여인과 배필을 맺는다. 태어난 아들 형제가 일월을 조정하고 수명장자를 징치한 후 이승 차지 경쟁을 하고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

승을 차지했다고 하면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꿰인다.

고대중 강일생 구연본과 같이 둘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보는 자료도 있는 것과 같이, 현대 연구자에게도 이 둘은 하나로 이해되는 것 같다.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을 보면 <베포도업침> 항목은 없고 <천지왕본풀이> 항목이 있는데 이를 설명하면서, “<베포도업침>이라고도 한다.”고 하고,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에 <베포도업침>의 천지개벽을 앞머리에 포함시키고 있다. “우주 기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세상의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²⁷⁾

이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비교해보자. 우선 구성면에서 <베포도업침>은 우주적 혼합이 세계적 질서로 마감되고, 천지왕본은 무도한 수명장자의 악행에 대한 언급에서 시작하여 인간 사회의 질서가 마련되는 것으로 끝났다. 시작은 일종의 무질서이고 결말은 질서이다. 둘째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의 초월적 존재를 아버지로 하고 땅의 지상적 존재를 어머니로 한 자손이 필요했다. 자연의 문제이건 인간의 문제이건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관계된 문제는 하늘의 초월적 능력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는 인식이다. 셋째로 그러나 <베포도업침>의 문제는 하늘의 해와 달 즉 자연과 인간의 문제였던 것에 반해 천지왕본의 문제는 수명장자의 무도함 즉 같은 인간의 악행이라는 점이 대조적이다. <베포도업침>에서는 창세 과정에서 하늘에 문제가 있었다면 천지왕본에서는 창세 후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 과정은 유사했다. 이렇게 정리해보자.

27) “천지왕본풀이”(필자 나경수),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09, 853-854면.

	베포도업침	천지왕본
상황	천지개벽	--
문제	복수 일월 문제	수명장자 악행 문제
해결시도		천지왕 해결/못함
해결방안	천지왕이 지상 여인과 혼인, 형제 얻음	
문제해결	대별소별 형제가 일월 조정, 수명장자 징치	
아들의 다툼	--	꽃피우기 등 이승자치 경쟁
결과	--	이승법 확립

이렇게 보면 <베포도업침>의 자연-인간의 문제와 천지왕본의 인간-인간의 문제의 차이가 있고 그 해결의 서사는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천지개벽은 <베포도업침>에만 있고 꽃피우기와 수수께끼는 천지왕본에만 있다. 이 차이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천지개벽은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베포도업침>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꽃피우기와 수수께끼는 지혜겨루기와 속이기이다. 이는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등장한다. 자연과 달리 인간 사회의 질서는 지혜와 속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한 자연의 속성과는 다른 것이다. 자연과 다른 인간만의 질서를 문명이라고 했을 때 문명이란 곧 자연의 모습을 바꾸는 것이고 이는 자연을 만든 신을 속이는 행위이다.

문제의 양상은 다르고 해결 과정의 서사는 동일하고, 자연 질서 찾기와 인문 질서 찾기는 앞뒤로 이어지기에 이 둘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다. 처음의 상황인 천지개벽은 창세신화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독립적인 화소이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창조 또는 창세이다. 해와 달이 둘씩 있다거나 기껏 만들어놓은 지상에 악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창세가 인간에게 불완전한 것이며 창세가 새롭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물이나 불로 세상을 징치하는 신화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를 천지재창조신화라 할 수 있다. 일월문제 등을 천지왕이 해결하지 못하고 지상녀와 혼인하여 아들 형제를 얻는 내용인 해결시도와 해결방안을 하나로 묶어볼 수 있다. 성장한 아들 형제가 일월문제나 수명장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다. 다음으로 아들들이 이승을 놓고 경쟁하여 결국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한 결과 이승에 악이 지속되게 된 것은 결과이다. 이러한 서사구성을 정리해 보자.

1. 천지개벽/ 창세
 -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
2. 천지 재창조
 - 우주 창조와 다른, 인간 사회를 위한 창조 필요
 - 일월 조정 문제, 지상의 악인 정치 등
 - 초월적 존재가 해결해도 또 문제 발생
3. 천지왕과 지상녀의 혼인으로 아들(형제) 탄생 (천부지모담)
 - 하늘의 원리와 지상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는 인물 탄생
4. 아들(형제)가 문제 해결
 - 부친 탐색 (정체성 확인)
 - 일월 조정, 인간의 악행 정치
5. 인간 세계의 이승법 마련
 - 인세차지 경쟁
 -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 세계

이 구조는 3항을 기준으로 대칭적이다. 1,2항은 세계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4,5항은 인간 사회 건설에 관한 이야기이다. 세계와 인간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항의 인물이 탄생했다. 이 인물은 5항의 인간 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면에서 영웅이라 할 수 있다. 이 영웅은 인간의 힘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아버지 쪽 초월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간략

히 ‘1. 천지개벽, 2. 천지 재창조 필요, 3. 아들 형제 탄생, 4. 아들형제가 문제 해결, 5. 이승법 마련’ 이라고 약칭하고, 서사 구성의 각 항목을 상세히 검토하자.

4. 서사 구성 항목의 분석

4.1. 천지개벽

<베포도업침>의 내용은 앞뒤로 크게 두 단락이다. 앞은 천지혼합이던 것이 개벽하여 나뉘고 세상 만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이고, 뒤는 둘씩 생긴 해와 달을 대개 대별왕 소별왕 형제로 나타나는 인물이 활을 쏘아 하나씩 제거하여 지상의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 사이에 하늘의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의 여인과 결합하여 낳은 인물이 대별왕소별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기도 하다. 이 뒤에는 대개 중국 고대 역사의 신화적 인물들 이야기가 문화영웅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제주도의 여러 신을 모셔들이는 내용이 길게 이어진다.

천지개벽의 요점은 천지가 혼합되어 한뫼덩이였던 것이 나누어지고 그 사이에서 만물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른 시기인 1937년 간행된 『조선무속의 연구 上』에 수록되어 있는 박봉춘 구연본에는 <초감제>라는 이름으로 <베포도업침>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구연본은 또한 중국의 역사와 고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서사적 의미가 있는 것을 추려서 이용하기로 한다. 문창헌 필사본과 함께 보인다. 사설은 길지만 중요한 부분은 둘이다.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천지혼합입니까
하늘과 땅이 맞붙튼 것이 혼합이요/ 혼합한 후에 개벽이 제일입니다
엇떠한 것이 개벽이뇨/ 하날과 땅이 각각 갈라서 개벽입니다

천지개벽이 었떠케 되었스릿가/
 하늘로부터 조이슬이 나리고/ 따으로부터 물이슬이 소사나와서/
 음양이 상통한직
 천개는 자하고 지개는 축하고 인개는 인하니
 하늘머리는 갑자년 갑자월갑자일 갑자시에 자방으로 열이고
 따머리는 을축년 을축월 을축일 을축시에 축방으로 열이고
 사람머리는 병방으로 병자년 병자월 병자일 병자시에 열이시고
 동방으로는 이엄을 드르고/ 서방으로는 출리를 치고
 남북방으로나래를 들이고/ 천지개벽이 되었습니다²⁸⁾

천지가 혼합으로, 제일음내다. 하늘과 땅이 감이 업서, 닌 귀과 가득아
 을 때, 하늘과 땅이 한몽텅이 되웁대다. 천지개벽할때도 업을 제일음내다.
 천개는 자화하고, 지벽은 추회하야, 인간은 인회로 도업하니, 하늘머리 열
 리웁고 땅의 머리 열여을 때 상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과 땅
 새에 떡증갓지 감이 나웁대다. 삼경 지나 새날이 되니 하늘론 청이슬, 땅
 으론 흑이슬 중앙엔 황이슬 내립대다. 천지인황 도업을 제일음내다. 하늘
 에 동으로 청구름 서의 백구름 남에 적구름 북에 흑구름 중앙에 황구름
 뜨고, 올때에 수성개문하웁내다. 동성개문 일웁내다.²⁹⁾

이 두 자료가 말하는 것은 처음에는 천지가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개벽
 하여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나누어지는 모습은 대단히 질서 있
 게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어느 날 하늘과 땅이 시루떡같이 사이가 벌어지
 게 되었다. 이는 하나였던 것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다. 둘째 이로써 하늘
 중간 땅이라는 세 공간이 마련되었다. 천지인이라는 기본 3 요소를 마련했
 다. 이는 수직적인 공간의 이해이다. 셋째 동서남북의 수평적 공간을 분할
 했다. 이들 사이에서 이슬 구름 별 산과 물 해와 달 등 천지만물이 생겨났

28) 秋葉 隆 외,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231면.

29) 문창현 필사, <초감제본>,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385면.

다고 한다. 맞붙어 있던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세상이 개벽되고 하늘 땅 인간의 세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위 아래로 갈라지는 것과 갑을병의 시간 순서와 동서남북의 공간을 제시하여 육합의 공간과 시간이 생겨난 것도 함축하고 있다. 아울러 세상의 첫 모습을 닭이 날개를 들어 울리며 새벽 해를 치는 모습으로 이미지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세상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였다.

온통 하나이던 것이 하늘 땅 둘로 나뉘어 천지인 셋의 공간을 마련하고 동서남북 넷의 방위를 설정하고, 둘째 공간의 사람을 네 방위의 중간에 겹치게 하여 다섯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들이 조합하여 만상을 만들어냈다. 이 창조 과정의 의미는 명확하다. 하나로 혼합되어 질서를 갖지 않았던 우주가 둘로 셋으로 넷으로 분리되어 질서를 가진 우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창세 과정 또는 창조 행위는 질서가 없던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세계 신화의 보편적 사고라고 생각된다.

4.2. 천지 재창조 필요

다음으로 세상에 해와 달을 만든 이야기가 나온다. 거인인 청의동자 앞 이마에 눈이 둘 뒷 이마에 눈이 둘 있던 것이 하늘의 두 개의 해와 두 개의 달이 되었다. 세상은 밝아졌으나 지상의 사람들은 낮에는 타죽고 밤에는 얼어죽는 일이 생긴다. 이에 천지왕은 지상으로 내려와 바지왕과 배필이 되어 대별왕 소별왕을 낳아 해결책을 찾는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는 지상에서 자라고 아버지를 찾아 하늘로 올라와 자식 인정을 받은 후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별을 만들고 하늘에는 해 하나 달 하나 만을 남겨두어 인간이 살기 좋게 해 주었다.

이 무가를 서사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는 하나로 엉켜있던 하늘과 땅이 나뉘며 동서남북과 위 아래, 갑을병의

시공간적 질서가 잡히게 되어 개벽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졌다는 것과 함께 하늘에는 해와 달이 둘씩 생겨서 지상의 인간들이 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창조는 완전하다는 점과 함께 그러나 인간이 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중적 시각을 보인다. 자연은 자연 그대로 완전하지만 인간에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면서도 자연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연의 일부로서는 우주의 개벽이 완전하지만 자연이 아니기에 자연 속에만 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인간을 위해서는 자연의 일부를 개조해야 하였다.

둘째 둘씩 있는 해와 달을 활로 쏘아 떨어뜨려 그것으로 여러 가지 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화적 해결이라는 점이다. 신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가 신적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점은 <천지왕본풀이>에서 신화적 행위가 별 소득 없다는 점과 대조되어 주목할 만하다.

셋째 박봉춘 구연본과 정주병 구연본에서 해와 달이 둘씩 생겼을 때 하늘의 존재인 천지왕이 직접 해결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지상으로 내려와 얻은 자손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이다.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인간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자연으로서는 문제가 아니었고 인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상의 어머니의 자손이기도 한 형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인간의 문제는 하늘의 초월자의 힘만으로도 지상의 인간의 힘만으로도 해결될 수 없었고 어머니의 지상적 의미와 아버지의 초월적 의미가 결합되어야 해결될 수 있었다.

나머지는 혼인 내용 없이 바로 형제가 솟아났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천지왕이 직접 해결하는 법은 없다. 고대중 구연본과 강일생 구연본에는 천지왕의 아들 형제 또는 삼형제로 되어 있다. 문창헌 필사본과 고창학 구연

본은 그냥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등장하고 김두원 필사본에는 활 잘 쓰는 유은거처, 강태옥 구연본은 활선생 거저님, 김병효 구연본은 유은거저가 일월을 조정한다.

이들은 천지왕 때 생긴 혼란을 천지왕 이후의 인물이 해결했다는 점에 서 대략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일월을 조정 한 후에 성현이 나와서 문화가 생겨나는 것으로 되는 서술의 흐름을 볼 때 우주에서 인간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도중에 생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에서 인간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바로 일월조정이 있었던 것이겠지만, 그 과정에 매개가 있어야 이야기가 순탄해진다면, 양극단의 중간에 매개항을 놓게 된다. 그것이 지상의 여성과의 혼인과 형제의 탄생으로 설정되었다. 우주와 인간, 하늘과 땅은 직접 연결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매개항을 필수로 요구한다. 기독교의 예수나 마리아가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떠올리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계는 최초의 무차별의 혼합 상태가 지금과 같은 우주적 인간적 질서로 변모되었다. 이러한 전반적이고도 기초적인 질서의 초석 위에 제주도 또한 공간적 질서가 잡히고 인간과 신격의 질서도 구체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는 것을 이어지는 무가 사설에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사건의 목적은 세계의 질서 확정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로 보면 처음의 혼합에서 창세의 분화 과정을 거쳐 마지막의 질서 확립이라는 순서를 갖는데, 중간 과정인 분화 과정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상적 능력과 인간의 문제의식을 가진 새로운 인물을 탄생시킨다는 서사적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겠다.

<천지왕본풀이>는 수명장자의 악행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베포도업침>에서 일월조정이라는 자연의 문제만을 제기한 것과 달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악을 문제로 삼는 것으로 이해된다. 악한 수명장자

를 징치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는데 그것을 천지왕이 직접 하는 각편이 둘, 실패하는 각편이 셋 있다. 여하튼 지상으로 내려온 천지왕은 지상의 여성과 합궁하여 아들 형제를 낳는다. 공통인 것은 아들들이 이승을 놓고 경쟁하며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하지만 형의 도움을 받아 일월을 조정한다는 점이다. <베포도업침>에는 둘씩 있는 일월이 문제였다는 설정만 있다. 천지왕본에는 일월이 다른 사항과 함께 나타난다. 나무 둘 새 짐승들이 말하는 것을 말 못하게 하고 귀신과 생인을 나누어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상의 혼란을 없애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무생 구연본에는 소별왕이 차지한 지상을 가서 다스리는데 일월로 인해 사람이 타죽고 얼어 죽는다는 말이 없다.

흔 하늘엔 해도 둘, 들도 둘/ 욕심 썬 놈이 하고, 도둑 적간이 하고/ 인
간이 불목이 하고/ 상팻짓이 하영 싹고/ 낭기 둘 제푸싹새라/ 말을 종종
긋고/ 귀신 불령 생인 대답/ 생인 불령 귀신 대답호곡/ 스천이 속신희고
/ 일가방문하여 온다.³⁰⁾

따라서 여기서 일월 조정은 지상의 혼란 중의 하나로 인식된다. 다른 구연본에서도 둘씩 있는 일월은 지상의 문제를 열거하는 것의 하나로 나타난다.

창세과정의 진술을 통하여 우리는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세상이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기대를 하게 한다. 그것이 구약성서 창세기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의 느낌,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이어지는 내용은 수명장자라는 악인의 등장과 징치담 또는 해와 달이 들어 있다는 진술이다.

30)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453면.

수명장자의 이야기는 악인의 등장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훗날 제사밥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늙은 아버지에게 밥을 주거나³¹⁾, 가난한 이웃에 쌀을 빌려주면서 모래를 섞어 준다.³²⁾

이 두 화소의 공통점은 새롭게 창세된 우주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창세에 결함이 있어서 하늘에는 해와 달이 둘씩 있게 되었고, 지상에는 수명장자 같은 악인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명장자만 악이 아니고 해와 달이 둘씩 있는 것도 악이다. 해와 달이 둘 있는 것은 우주 자체로 보면 악이 아닐 수 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에 악이다. 그래서 창세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³³⁾ 천지가 개벽되었으나 불완전하였다는 것이 판명되자 당연히 필요해진 것이 천지 재창조이다.

4.3.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과 아들 형제 탄생

다음 화소인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연은 천과 지의 결연이라는 측면과 함께 수명장자의 징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앞의 화소인 수명장자의 징치를 다시 생각해 보자. 수명장자와 지상국 부인은 지상에서 살아가던 존재였다. 천상의 천지왕은 다른 공간에서 살던 존재이다. 그 징치담은 지상국 부인이 같은 지상의 존재인 수명장자를 거부하고 천지왕과 결합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1) 문창헌 필사, <천지왕본>, 김현선, 389면.

32)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431면.

33) 천지가 개벽할 즈음에 악이라는 개념은 무엇일까? 이 악은 현대의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박봉춘의 구연본은 주목할 만하다. “수명장자가 하로는 천왕께 항하야 이되되 이 세상에 날 잡아 갈 자도 있으리야 호담을 하니 천지왕의 께싯히 생각하야, 인간에 내려와서”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403면). 수명장자의 악은 천지왕과 대등함을 주장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천지왕에게 악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찰이 필요하다.

천과 지의 결합은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사건이다. 혼합되어 있던 우주를 나누어 질서를 부여했는데 그 질서가 완전치 못했으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처음의 결합된 상태로 회귀하여 새로운 분리 작업을 해야 한다. 그 결합이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의 결합이다.

그러나 그 결합은 최초의 분리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최초의 분리는 우주적 질서였지만 새롭게 필요한 창조는 인간 사회의 악을 징치하여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합의 결과는 대별왕 소별왕 형제의 탄생이다. 이 형제는 부모의 결합이 우주의 결합이었기에 우주적 힘을 가지고 해와 달을 조정하고, 천지로 나누어졌던 것이기에 서로 다룬다.

지상국 부인이 낳은 아들 형제는 하늘로 아버지인 천지왕을 찾아간다. 이 화소에서 아버지가 하늘의 천지왕이라는 점과 그로부터 아들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지상의 수명장자가 아니라는 것, 천지왕으로부터 내려진 수명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라는 것은 아들의 존재의 새로운 근거이다. 아들들은 자기 존재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가 내리는 시험에 응한다.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임을 인정받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존재의 정당성에 대한 확답이다. 지상에 존재하지만 근원은 하늘이라는 것,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지상국 부인의 존재는 경시되기 시작함을 본다. 지상의 어머니의 인정은 의미가 없다. 나중에는 어머니조차 아버지의 시험을 거쳐야 아내로 인정받게 되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천지개벽 이후 천지가 나누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천지의 대립을 보고 있다. 지상의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지상의 아들은 시험에 통과해야 하늘의 아들이 된다. 지상의 어머니는 부정된다. 이를 신화의 남성화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여성 원리의 본래 모습으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또한 이들이 형제라는 사실도 주목할 일이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점이다. 이 둘은 때로는 쌍둥이로 때로는 적대 관계의 인물로 변형될 수 있다.

4.4.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임을 인정받은 형제는 두 개씩인 해와 달을 하나씩으로 조정한다. 이는 이들이 천지의 결합으로 출생한 것이므로 하늘의 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천상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원초적 상태로 회귀하여 질서를 재편하는 것의 모형이다. 그러나 일월조정의 결과는 지상의 질서이다.

주목할 것은 이 일월조정이 원래는 형제의 몫이 아니었던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베포도업침>에서 천지개벽 직후 이미 해와 달이 둘이어서 창세가 불완전했음을 보인 바 있다. <베포도업침>에서도 대별왕소별왕 형제나 유은거처가 활로 쏘아 일월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천지재창조 이후에 다시 이 화소가 나타나는 것은 재창조 이후에도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원점으로 돌아가 세계를 다시 창조하더라도 세계의 불완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러나 대별왕 소별왕 형제가 활로 쏘아 해와 달을 조정하지 않았는가? 그렇다. 그러나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하다. 그 불완전함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형제의 세상차지하기 다툼으로 변이된다. 이는 인간 사회의 불완전은 우주적 질서에 기인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그보다는 초월적 존재자들의 다툼에 말미암는다는 생각으로 변형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주체는 대개 천지왕이다.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각편은 박봉춘 본이 유일하다. 이 각편에서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한 후에 ‘수명장자를 참지전지한 연후에 파리 빈대 각다리 되어 날아가게’

하였다. 그 결과로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복과 록을 마련하여, 선악을 구별하고 인간차지 하옵내다.’³⁴⁾하였으나 이는 내용상 의아하다. 꽃피우기 경쟁에서 속임수를 써서 이승을 차지한 소별왕이 선악을 구별하는 이승법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논리에 파탄을 일으킨다. 다른 대부분의 각편에서는 형제의 수명장자 정치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는 수명장자 정치 화소가 원래 천지창조에 이어지는 천지재창조 신화였기 때문일 것이다.³⁵⁾ 이는 천지왕의 몫이었다.

원래 보편적으로, 천지창조는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 창조와 인간사회까지를 창조하면서 인간이 죽을 운명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인간 사회에 악이 지속될 것임을 해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천지왕이 지상의 악인인 수명장자를 징치했으면 지상에는 악이 없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 이는 근원적으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의 근원은 보다 깊은 것이다.

가령 성서에는 노아홍수가 있었다. 노아홍수로 지상의 악인을 쓸어 없애고 다시는 이와 같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언약하였지만 세상에는 또다시 악이 팽배해 있다. 이는 노아 이전에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와 그 배후의 사탄이 세상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명장자를 징치하여도 지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세상의 시초인 개벽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 잘못이 끝없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4.5. 이승법 마련

해와 달의 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는 세계의 질서가 완비되었다는 인식이

34)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406면.

35) 장자못 전설이 천지재창조 신화로 이해되는 것이 이에 기인한다. 신연우, 『장자못 전설의 신화적 이해』,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180-199면.

다. 이제 세상의 악을 천지개벽의 미비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 형제의 활동은 이중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해야 하겠다. 형제의 일월조정은 천지창조를 되풀이하는 것이면서도, 그들이 바로 세상에 현존하는 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졌으니 세상에 질서가 잡혔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악이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은, 그들의 근원이 여전히 지상적이라는 데 있을 것이다.

형제가 천상의 아버지의 자식이므로 일월을 조정할 수 있지만 지상의 어머니의 자식이기도 하므로 다툼은 지속된다. 천상은 질서의 근원이지만 지상은 다툼의 근원이다. 그러나 하늘 원리로 지상을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하늘 원리는 해와 달이 둘씩이어도 상관없을 것이다. 일월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상의 질서 때문이다. 하늘의 원리만으로 지상의 질서를 가져올 수 없다는 인식이 문제의 발단이다. 지상의 원리는 다툼이고 분열이라는 것이다.

지상의 원리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이 화소의 핵심이다. 지상의 다툼은 천상의 질서의 원리로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천상의 질서로도 지상의 다툼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하늘 원리로 회귀하고 최초의 창조를 되풀이하지만 그것의 의의는 지속에 있을 뿐이다. 최초의 창조는 완벽했더라도 지상의 현실은 그와 달리 불완전하다는 도저한 인식이 이 신화의 깊이이다.

그 불완전함에 대한 해명이 인세차지 경쟁에서 소별왕의 속임수 때문이라는 사후적 해설이다. 각편에 따라 소별왕은 인세를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내고 마지막이자 모든 각편에 공통적으로 꽃피우기 경쟁을 하여 형을 속이고 세상을 차지한 것이 이 세상의 악의 근원이라는 해명이다.

소별왕은 왜 그렇게까지 해서 인세를 차지하려 하는가 살펴보자. 그것은 일월조정으로 세상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은 어

차피 소별왕 때문에 다시 불완전해질 것이었다. 따라서 그보다는 소별왕이 바로 지상의 원리인 불완전성을 담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이 벌이는 수수께끼가 종종 자연의 일반원리와 특수한 사정의 대비에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가령 문창헌 필사본에는 동지선달 설한풍에 모든 나뭇잎은 다 떨어지되 대잎은 왜 푸른가 하는 소별왕의 질문에 대별왕은 대는 속이 비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다시 소별왕은 그러면 동백나무는 속이 피지 않았는데 어찌 해서 겨울에 푸르냐고 되물어 말문을 막는다. 대나무가 속이 비었다는 특징은 누구나 아는 것이다. 그러나 동백이 왜 겨울에 푸른가는 말하기 어렵다. 대나무는 나무 중에서 예외적인 것임은 쉽게 알 수 있지만 동백은 그 예외의 이유를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간사는 그렇듯 알기 어려운 것이다. 소별왕은 깊은 구렁에 풀이 걸게 나느냐 높은 동산에 걸게 나느냐 묻고 대별왕은 깊은 구렁에 걸게 난다 하자 소별왕은 왜 사람은 머리에 털이 많고 발등에는 터럭 하나 없느냐고 묻는다. 이는 자연의 일반 원리와 인간의 경우는 적용이 달라야 함을 말해준다. 일월 조정으로 자연의 질서는 잡았지만 그것으로도 인간의 질서는 잡히지 않았다.

인간의 질서는 천상의 질서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천상의 질서로 고정시키려 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세계 인식을 보여준다. 지상의 다툼은 근원적인 것이다. 다툼을 인정하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천상적 조화에서 질서의 원리를 빌려다 쓰는 수밖에 없다. 현상의 다툼과 부정과 무질서를 인정하면서 하늘의 원리를 이용해 조화와 질서를 구현하려는 끝없는 노력,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인식이 이 신화 담당자들의 것이었다. 이 노력은 시지푸스적인 부질없는 노력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인간다움은 그러한 부질없는 노력에만 있다는 사색의 깊이가 이 신화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노력 끝에 인간 세상에는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각편도 있고 그 결과로 인간 세상에는 악이 만연하게 되었다는 각편도 있다. 전자는 두 개 씩이던 해와 달을 조정하든 악인인 수명장자를 정치하든 무질서와 악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세상을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곳으로 만들어 놓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는다. 질서를 가져온다는 점을 보다 구체화하면 사회를 구성한다거나 국가를 창건한다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소별왕이 속임수로 세상을 차지했으므로 이 세상에는 속임수를 비롯해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이라고 한다. 이는 현 세상의 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해명하기 위한 설정이다. 창세기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뱀으로 나타난 악신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있게 되었다는 설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적인 지적 이면에 가려 있는 의미도 있다. 앞항에서 설명한 것처럼 쌍둥이 형제 중에서 소별왕이 이 불완전한 지상을 차지하는 것은 그가 지상의 문제를 더 많이 담지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우선 이 세계의 실체를 지적한 말일 수 있다. 이 세계는 선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본질적인 양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대별왕의 선함만으로 세상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깊이 있는 이해이다.

아울러 소별왕이 꽃을 훔치는 것은 문화사적인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별왕은 자연스럽게 꽃을 피운다. 아무 노력 없이 피어나는 꽃은 그대로 자연이다. 소별왕은 꽃을 자신의 것으로 옮겨 심는다. 이는 꽃에 인공적인 노력을 가한 것을 보여준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은 해와 달이 돌쉴인 것처럼 인간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 자연은 인공적으로 다듬어져야 인간의 문화가 된다. 식물 재배는 자연이 아니다. 자연을 인간 위주로 가공한 것이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는 것은 순수한 자연에 대한 악

행을 저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이다. 대별왕과 달리 소별왕은 인간세계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이들은 모두 인간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거나 이해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런 점에서 문창헌 필사본과 박봉춘 구연본에서는 소별왕이 “형은 미련해서” 이승을 못 다스린다고 또는 자기는 수명장자를 징치할 수 있지만 “우리 형은 못하리라” 생각하여 형을 속이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김두원 필사본과 이무생 구연본에는 동생이 이승을 차지하지만 이승의 무질서를 해결하지 못하여 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니 형이 큰 법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작은 법은 마련하지 못하여 이승에는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한다.

소별왕이 다스리는 이승에 악이 만연하게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체험적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악과 무질서의 현존성과 불가피성을 소별왕 탓으로 원인 규명하고 있다. 이승의 악과 무질서가 불가피한 것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새로 제기한다. 이 서사무가 다섯 편에서는 둘은 소별왕이, 둘은 대별왕이 처리하며, 하나는 그 논란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다. 지상의 악을 지상의 존재가 해결해야 하는가 아니면 지상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천상 또는 저승의 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앞의 둘은 불완전해도 지상적 존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뒤의 둘은 천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세계관의 대립적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악에 대처하는 이 대립은 이중으로 구현된다. 하나는 하늘의 천지왕이 해결하지 못하여 지상의 여인과 사이에 낀 형제가 해결한다는 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형제에서도 지상적이기만 한 존재와 천상 또는 저승적 존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벌이는 논쟁이다. 전자는 지상의 문제는 천상의 원리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천상과 지상

적 문제의식과 천상적 원리의 결합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같은 힘을 가진 형제 사이에서 지상적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천상의 원리가 더 중요한가 지상적 원리만으로 가능한가 논란을 벌인다. 이 논쟁은 철학적인 것이다. 실제로 가령 조선조의 성리학에서 예를 들어보자. 천상원리가 있어야 지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이기이원론의 전제이다. 여기서 천상을 더 강조하는 이황이 있고 천상과 지상의 절묘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이이가 있다. 뒤의 형제끼리의 다툼은 이이의 이론 이후 전개된 바, 기의 문제는 기 자체에서 해결된다는 일원론적 주기론의 논리와 기의 문제는 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리의 도움을 얻어 해결된다는 이원론적 주기론으로 구현되었다. 기를 강조하면서도 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리에서 기로 내려왔으나 기 안에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던 모습과 닮아 있다.

5.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접맥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두 개의 개별적인 구송물이지만 사실은 내용이 이어지는 하나의 신화라는 관점에서 앞항의 도설을 더 명료하고 단순하게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천지개벽이 있었다. 하늘과 땅을 나누고 동서남북의 공간을 정했다. 이는 이른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분화한다는 창세신화를 이루는 화소이다. 천지개벽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관념과 어떤 주체가 있어서 거인의 앞 뒤 이마에 있는 눈 두 쌍을 하나씩 빼서 해와 달을 둘씩 만들었다는 관념이 함께 나타난다.

둘째로 하늘에 해와 달이 둘 있게 된 것은 문제이므로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창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의 시도인 셈이다. 하늘에 해가 둘 달이 둘 있는 것은 우주로 보면 문제가 아니다. 그로 인해 지상의 인간들이 죽어나가기에 인간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 지상에는 수명장자라는 악인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것도 창조가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이다. 이런 이유로 천지개벽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위한 창조가 다시 있어야 한다. 천지개벽보다는 소규모의 창세이다. 이를 천지 재창조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하늘의 천지왕이 지상으로 내려와 지상의 여성과 혼인하여 아들 형제를 낳는 내용이다. 이는 천지왕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일어나는 일이며 천지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상으로 내려왔고 또 총명하기 같은 지상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天父地母 라는 화소로 우리에게 익숙하다.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상황의 초점은 천상에서 지상으로 확실히 이동하였다.

넷째는 아들 형제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화소이다. 이 안에는 아들들이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심부담과 아직 해결되지 못한 일월조정이며 수명장자 징치가 포함된다. 왜 하늘의 아버지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지상의 아들이 해결하는가 하는 신화적 문제와 의미가 생겨난다. 여하튼 문제의 해결이라고 정리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섯째는 해결로 신화가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접어들고 그 결과 지상의 현재 상태에 대한 해명이 이어진다. 여기서는 형제의 다툼과 소별왕의 속임수와 승리가 그 내용이다. 일월을 조정하고 수명장자를 징치했는데도 지상에는 악이 지속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큰 질서는 잡았지만 또다른 무질서는 지속된다. 이는 지상의 현실이다. 신화에서 이를 부정할 방법은 없다. 신화는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항목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지상의 질서를 소별왕이 세웠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대별왕 소

별왕의 활동의 결과가 지상적 질서인 것이다.

이를 간략히 나타내보자.

- | | |
|-----------------|--------------------|
| 1. 천지개벽(천지창조) | --- 처음 상황 |
| 2. 천지 재창조 | --- 문제와 해결 시도 |
| 3. 천부지모의 아들 탄생 | --- 주인공 탄생 |
| 4. 아들 형제가 문제 해결 | --- 문제 해결 |
| 5. 지상적 질서 세움 | --- 새로운 질서와 미완의 문제 |

이를 통해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은 1과 2는 창세신화이고 4와 5는 영웅신화라는 것이다. 3은 창세신화와 영웅신화를 이어준다. 즉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와 영웅신화를 둘이면서 하나로 이해하는 神話意識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신화는 서사라는 점이다. 초감제 전체는 교술인 바, 그 안에서 <베포도업침>의 일부와 <천지왕본풀이>는 서사로 구성된다. 그것은 결핍과 문제, 해결의 시도와 적대적 세력, 고난과 해결이라는 서사의 전범에 닿아 있다.

창세신화와 영웅신화는 어떤 관계일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의문이다. 창세신화와 영웅신화는 흔히 따로 전승되어 왔고 다른 범주의 신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들을 하나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영웅신화의 영웅은 보통 사람과 달리 대단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의 천상적 능력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지상으로 내려온 이유는 창세를 완결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세를 완결해도 지상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영웅이다. 하늘의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이다. 영웅신화에는 이 사연이 생략되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창세신화와 직결되는 것이다. 영웅은 자신이

지상적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주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순간을 가지게 된다. 그 순간을 거쳐야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은 조셉 캠벨이 지적한 바와 상통한다. 캠벨은 비실재적 실재의 직접적인 발산에서 신화적 시대의 유동적이나 시간을 초월한 존재에 이르는 단계를 거쳐 이 실재적 단계에서 인류 역사의 영역에 이르는 단계로 신화의 단계를 둘로 구분 한 후 이와 같이 말한다.

영웅의 첫 번째 과업은 우주 발생적 순환의 그 전단계를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발산의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업은 심연에서 일상의 삶으로 귀환하여 조물주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적인 변환자재자가 되는 것이다.³⁶⁾

캠벨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표현한대로 세상의 많은 신화들은 드러나는 모양은 달라보여도 사실은 같은 주제와 구성을 가진다. 바로 위의 인용문에서 제시한 내용이다. ‘우주 발생적 순환의 전 단계를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영웅에게 먼저 요구된다. 그 사실과 ‘일상의 삶으로 귀환하여’ 능력을 보이게 되는 것은 같은 궤도상에 있다. 세계의 영웅신화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제주도 신화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일정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캠벨의 그 말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해명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 신화를 통해서 천지창조 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영웅에게 왜 천지창조 신화가 필요한가 하는 점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가령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질서의 결핍으로서 지상의 악과 무질서가 문제가 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있어서 천지왕은 수명장자 징치

36)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311면.

에 성공하거나 실패한다. 어떤 경우에도 악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악은 수명장자이기도 하고 둘씩인 해와 달이기도 하다. (지상의 악을 물리쳐도 악의 근원은 천상적이기에 박멸될 수 없다. 이것이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상의 문제 이해와 천상적 능력을 가진 지상의 존재가 필요하다. 천부지모의 아들이 탄생해 문제를 해결한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도 지상의 악과 무질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현실적 인식에 근거한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그때그때 해결될 수 있다. 지상적 문제의식과 천상적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된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 새로 생겨난다. 이러한 문제는 이야기를 더 이끌어낸다.

캠벨이 말한 “우주 발생 즉 창세의 상황을 의식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류학적 또는 신화적 맥락에서 입사식(initiation)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입사란 사회적, 정신적으로 새로 태어남, 거듭남이다. 육체적으로 아기로 태어난 것은 누구나 저절로 겪는 것이지만, 장성하면서 정신적으로 거듭나고 사회적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노력과 자질을 필요로 한다. 흔히 괴물에 의해 삼켜지거나 동굴이나 격리된 곳에 들어가 한참을 지낸 후 다시 나오거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재생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사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엘리아데가 이렇게 지적한 바 있다.

가입의례신화와 태내 복귀의례는, <시원예의 복귀>는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지만, 새로운 탄생은 최초의 육체적 출생의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준다. 그것은 정신적 성격을 가지며, 이른바 신비적 재생 - 말을 바꾸면 새로운 존재 양식(성적 성숙, 성스러운 것과 문화에의 참여, 즉 靈에 대해 열려지게 된다)으로의 길이 된다.³⁷⁾

정신적인 영적인 탄생을 하는 것이 입사식이다. 영웅은 육체이기만 한 존재였던 것을 영적이고 정신적인 속성을 얻음으로써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육체가 지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면 영적이고 정신적인 속성의 근원은 저 높은 곳 초월적인 곳에 있다. 초월적인 것의 속성과 지상적인 육체가 새롭게 결합하여 지상적이면서 초월적 천상적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입사식이다.³⁷⁾

영웅신화에서 지상적인 것은 영웅을 낳는 처녀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머니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경재는 처녀인 점은 “기존 문화와 가치가 아버지의 법으로 상징된다면, 영웅은 아버지에 매이지 않은 어머니 즉 처녀로부터 탄생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노이만을 인용해서 “어머니가 본능적인 측면을 가리킨다면 아버지는 의식적 측면을 가리킨다.”³⁸⁾고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와 투쟁하는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 꼭 어머니가 처녀일 이유는 없다. 제주도의 케네기 또는 아버지가 분명하지만 아버지에게 쫓겨나고 돌아와 아버지를 무찌른다. 성서의 예수의 어머니가 처녀인 것은 아버지가 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처녀성이 대지의 생산성과 연관되는 것은 타당하지만 아버지와 대립하기 위해서는 아니다. 또 본능과 의식의 대립으로 나누고 본능은 안정적이고 의식은 변화하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어머니가 자연이라면 아버지는 문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면의 진실이다. 신화는 본능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다룬다. 어머니가 자연이기는 하지만 자연이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의식에 의해 달라지는 자연이 문화가

37) 엘리야드 저,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년, 99면.

38) 민공기는 “입사제의는 신화적 세계에 있어서 인간 실체의 우주성을 획득시켜주는 제도가 되며, 인간이 입사제의를 마쳤다는 것은 그가 우주적 실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민공기, 『문학작품의 형식에 관한 한 생각』, 『사립어문연구』 제7집, 사립어문학회, 1990, 27면.

39)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 273면, 281면.

된다. 이 문화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새로운 의식을 통해 새로운 문화로 거듭난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질서에 의한 새로운 문화를 창안하고 수립하는 자가 영웅이다. 그러나 이경제의 언급도 크게 보면 결국 이 둘, 어머니와 아버지, 지상적 측면과 천상적 원리가 결합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영웅의 탄생은 앞장에서 제시한 5단 구성의 제 3항의 아들 형제의 탄생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들이 하늘의 아버지와 지상의 어머니의 결합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창세 신화에서는 실제라고 인식되는 진술이지만 영웅신화에서는 실재의 모방적 진술이다. 캠벨이 말한 바, “우주 발생적 순환의 그 전 단계를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초감제로 돌아가 보자. 〈베포도업침〉에서 가장 단순한 것은 서순실본처럼 천지개벽만 있는 것이다. 복잡한 것은 박봉춘이나 안사인본처럼 개벽시 하늘에 해와 달이 둘씩 떠서 인간이 고통과 죽음을 겪으니 천지왕이 지상의 여성과 혼인하여 그 아들이 활로 쏘아 일월을 조정한다고 한다. 단순한 것은 교술만으로 그칠 수도 있다. 〈베포도업침〉의 많은 부분은 교술이기도 하다. 복잡한 것은 교술을 넘어선다. 결핍과 적과의 대립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등장하는 서사가 된다.

〈베포도업침〉이 원래의 단순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라면 복잡한 서사는 〈천지왕본풀이〉의 것에서 가져와서 되풀이한 것일 수 있다. 원래 복잡한 것이라면 〈베포도업침〉의 서사를 천지왕본풀이에서 확대 재생산한 것일 수 있다. 〈베포도업침〉의 서사는 지상의 악의 근원이 천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연은 완벽하게 창조되어도 인간에게는 살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천지왕본풀이〉의 서사는 악이 천상의 것과 지상의 것 두 가지로 존재하며 급기야는 둘을 다 물리쳐도 소멸왕으로 인한 악이 있어서 지상에서 악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화소는 수명장자 징치와 형제의 이승 차지 다 톰이다. 천지개벽으로 천지 질서를 잡게 되었다는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 완결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질서에 인간 세상도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가 되면 그 진술에 의문이 들게 된다. 예를 들면 성서 창세기에서 완전하고 전능한 하느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한다. 그래서 천지는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는 이것으로 종결될 수 없다.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악과 무질서가 만연해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⁴⁰⁾

천지의 창조와 인간 세계의 창조는 문제가 다르다. 천지는 하느님의 뜻대로 창조되면 되지만 인간 세계는 인간이 살기에 좋은 세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그리 좋지 않다. 이것이 문제이다. 이는 하나의 결핍 상황이다. 질서의 결핍, 선의 결핍이다. 결핍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선과 결핍의 적대자가 있게 되고 대립과 싸움이 있게 된다. 이야기는 서사가 된다.

창세기는 악의 근원으로 신인 사탄을 제시했고 <천지왕본풀이>는 수명장자와 소별왕을 지목했다. 이 둘은 기능이 약간 차이가 있다. 천지가 개벽하고 우주의 질서가 완성되었어도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이미 수명장자가 있다. 이는 근원적 악이다. 수명장자는 흔히 가난한 사람에게 모래를 섞은 쌀을 빌려주고 연로한 부모에게 하루 한 끼밖에 밥을 주지 않거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악인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박봉춘 본에는 수명장자의 악이 천왕을 향하여 “이 세상에 날 잡아갈 자도 있으리야 호담을 하니 천주왕의 갯심히 생각하야, 인간에 나려”⁴¹⁾오게 한 것이다. 천지왕

40) 도로테 쾰레는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하느님의 창조는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자신의 신학을 새로 정립한다. 도로테 쾰레, 박재순 옮김, 『사랑과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88, 1-269면.

과 대적하기에 악이다.

이는 지상의 문제는 천지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과 인간에게 지상의 문제는 천상의 문제만큼이나 비중을 갖고 있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하러 지상에 내려온다. 문창헌 정주병 본은 천지왕이 직접 징치하고 다른 데서는 징치에 실패하여 아들 형제가 징치한다. 천지왕이 징치에 성공하는 것은 지상 문제에 하늘의 힘이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일 것이다. 반대로 징치에 실패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인식일 것이다. 이 둘이 모두 같은 신화에 나타난다는 것은 수용자인 인간의 이해의 차이를 보여준다.

천지왕이 징치에 성공하면 문제는 간단하고 그것으로 종결된다. 그런데 그런 각편에서도 천지왕은 지상의 여인과 합궁하여 아들을 얻는 것으로 전개된다.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명확해진다. 하늘의 존재가 아니라 지상의 존재가 문제를 새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상의 악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더 중요한 문제의식이 놓인다. 천지왕이 징치에 성공해도 지상은 악이 지속되며 아들들이 성공해도 마찬가지이다.

수명장자는 지상의 악이다. 그것은 천상의 질서를 확대하면 징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에는 무질서와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

들엔 해도 둘 별도 둘 욕심 썬놈이 많고 도둑적간이 많고 인간이 불목이 많고 상괘짓이 많고 나무들 제푸십세라 말을 종종 하고 귀신 불어 생인 대답하고 생인 불어 귀신 대답하고 산천이 속신하고 일가반문 하여온다.⁴¹⁾

인간의 살인 역적 만흐리라. 고문 도둑 만흐리라. 남즈족식 열다섯 십오세가 돼며는 이녁 가속 노아두고 놈의 가속 울러르기 만흐리라. 예즈족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면 이녁 뉘편 노아두고 놈의 뉘편 울러르기 만흐리라.⁴²⁾

41)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앞의 책, 403면.

42) 김두원 필사, 천지왕본, 김현선, 같은 책, 413면.

수명장자를 징치하고 일월을 조정해도 지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바로 지상을 다스리는 자가 속임수를 써서 지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역시 근원적이다. 해와 달처럼 천상적이지 않지만 지상적 근원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월은 조정되었고 수명장자는 징치되었다.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큰 악은 징치되었다. 그러나 각종 악과 무질서는 존속한다. 그것은 질서와 병존한다. 그것이 삶과 세계의 실상이다.

수명장자를 징치해도 남아 있는 지속적인 악과 무질서의 근원은 결국 지상의 근원이 아니라 천상에서 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일월이 둘씩 나타난다는 문제로 형상화되었다. 지상의 악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수명장자로 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日月이 둘씩 있어서이다. 하나는 지상적인 것이지만 하나는 천상에 기인한다. 이것은 개벽이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천지개벽이 불완전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천상의 존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천상의 존재는 인간 현실과 동떨어진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천상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적이면서 천상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지상적인 것은 지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갖기 위해서이고 천상적인 것은 지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를 갖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와 지상에서 고난을 겪고 사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은 지상에서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천상의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아는 것은 자연의 창조와

43)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헌선, 같은 책, 437면.

는 다른 인간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 자연의 창조를 모방하지만 필요한 것은 인간 사회의 건설이다. 영웅의 최종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깊이를 단순한 일방적 진술인 교술로 나타낼 수가 없었다고 보인다. 이것은 대립과 싸움의 이야기이다. 대립과 싸움을 다루는 문학은 바로 서사이다.⁴⁴⁾ “지금 겪는 잘못의 경험을 총체적 의미와 연관시키는 것이 바로 이야기로서의 신화다.”⁴⁵⁾ <베포도업침>에서 개벽의 불완전성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설정되는 각편에도 서사적인 것이 필요하고 수명장자와 일월 문제와 소별왕 문제를 악의 이유로 지명하고 조정하려는 <천지왕본풀이>에도 서사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진하다. 둘을 역사적인 이해 뿐 아니라 신화적 의미 맥락으로 해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캠벨이 지적하고 수많은 사례를 든 영웅신화의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단서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라는 둘이면서 하나인 신화로부터 배태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6. 맺음말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해본다. 먼저 제주도 신화의 첫머리에서 구송되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자료 양상을 제시했다. 두 신화는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러나 <베포도업침>은 천지개벽과 일월 창조와 조정 등 창세신화의 면모가 부정될 수 없고, <천지왕본풀

44)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04-132면.

45) 폴 리쾨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167면.

이>는 아버지를 찾는 아들과 일월조정, 인세차지 경쟁담 등 영웅신화적 행위가 뚜렷하다. 이 두 가지 면모를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서 하나로 겹쳐 보이기도 하고 둘로 나누어 보이기도 하였다는 것은 신화주체들이 이 둘을 연결시켜 이해하는 신화적 사유를 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먼저 열 편의 초감제 신화를 통해서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서사구조와 공통화소를 정리하고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두 신화는 '1. 천지개벽, 2. 천지 재창조 필요, 3. 아들 형제 탄생, 4. 아들형제가 문제 해결, 5. 이승법 마련'이라는 다섯 개의 서사 단락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그 화소가 의미하는 바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천지왕은 신화적 해결 방법으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더 이상 신화적 방법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으며, 결국 천지왕이 지상의 여인과의 혼인에서 얻은 아들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천상의 존재는 인간 현실과 다른 차원의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상의 문제를 천상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어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적이면서 천상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지상적인 요소는 지상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갖기 위해서이고 천상적인 요소는 지상을 뛰어넘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존재를 갖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아버지와 지상에서 고난을 겪고 사는 어머니가 필요하다. 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지상에서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며, 천상의 안목과 능력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신화의 궁극적 목적은 지상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일 터이다. 그런 점에서 영웅의 활동이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질문이 필수적이고 이는 바로 창세의 첫 과정으로 되돌아가서 하늘의 아버지의 능력과 문제의

식을 이어받는 자로서의 영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정립된다. 창세신화가 질병을 치유하는데 이용되는 것이 창세 이전으로 되돌아가 질서를 새롭게 하는 것이듯이, 영웅신화의 주인공은 창세 때 활동했던 천상의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정받을 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영웅은 자신이 지상적 존재의 차원을 넘어서는 우주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순간을 가지게 된다. 그 순간을 거쳐야 영웅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영웅의 재탄생은 흔히 입사식 또는 입사제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아는 것은 자연의 창조와는 다른 인간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 자연의 창조를 모방하지만 필요한 것은 인간 사회의 건설이다. 영웅의 최종 목표는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창세신화와 영웅신화가 접맥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신화적 구도는 제주도의 초감제 신화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띠는 것이 여럿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확인하여 이 신화 구도의 보편성을 보이는 것이 다음 작업이 된다.

참고문헌

- 강정식 · 강소전 · 송정희, 『동북 정병춘 덕 시왕맞이』,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2008, 1-700면.
- 김헌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1-506면.
- 문무병, 『제주도 무속신화 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1-383면.
- 박종성, 『한국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1-411면.
- 이경재, 『신화해석학』, 다산글방, 2002, 1-351면.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1-500면.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1-506면.
- ,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472면.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1-533면.
- 도로테 쉴레, 박제순 옮김, 『사랑과 노동』, 한국신학연구소, 1988, 1-269면.

- 엘리아드, 이은봉 역, 『신화와 현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4년, 1-244면.
- 조셉 캠벨, 이윤기 옮김,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1-383면.
- 폴 리퀴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지성사, 1994, 1-330면.
- 秋葉 隆 외, 심우성 옮김, 『조선무속의 연구』 上, 동문선, 1991, 1-508면.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2, 국립민속박물관, 2009, 1-1017면.
- 강소전, 「<천지왕본풀이>의 의례적 기능과 신화적 의미」, 『탐라문화』 32호, 탐라문화 연구소, 2008, 251-282면.
- 김남연, 「한국 창세신화 유형담의 전승과 그 변이」, 연세대 석사논문, 1995, 1-80면.
- 김선희,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영주어문』 제22집, 영주어문학회, 2011, 61-90면.
- 김현선,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39-269면.
- 민궁기, 「문학작품의 형식에 관한 한 생각」, 『사립어문연구』 제7집, 사립어문학회, 1990, 5-42면.
- 박종성,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적 의미」, 『구비문학연구』 제6집, 한국구비문학회, 1998, 351-382면.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 실, 1981, 18면, 1-30면.
- 신연우, 「장자못 전설의 신화적 이해」, 『우리 설화의 의미 찾기』, 민속원, 2008, 180-199면.
- 임석재, 「우리나라의 천지개벽신화」, 『비교민속학』 제7집, 비교민속학회, 1991, 147면, 113-151면.

논문투고일 : 2014. 4. 28. 심사완료일 : 2014. 6. 6. 게재확정일 : 2014. 6. 10.
--

Abstract

The Narrative Structure and Correlation of "Creation" and "Heor"
in Jeju Shamanistic Myth, <Bepodoeopchim>
and <Chonjiwang Bonpuri>

Shin, Yeon-woo*

In the beginning of the shamanistic ritual in Jeju Island, shamans sing <Bepodoeopchim> and <Chonjiwang Bonpuri>, sometimes in succession, sometimes separately. These two narratives share the motifs of creation myth and hero myth in common. I would like to show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se two stories are functioning as one plot.

The motif of <Bepodoeopchim> and <Chonjiwang Bonpuri> lies in order like this: the first condition(Creation) - problematic condition - attempt to solve - solution - new problem - present condition(earthly evils). The myth ends but the evil lasts to the present.

We can also show the common ground plot of <Bepodoeopchim> and <Chonjiwang Bonpuri>.

- | | |
|--|---|
| 1. Cosmic Creation | ----- the first condition |
| 2. Re-creation | ----- problem and attempt to solve |
| 3. Birth of the son(of
heavenly king and
earthly mother) | ----- birth of the hero |
| 4. the son's solving of the
problem | ----- problem solving of the hero |
| 5. setting up the order of
the earth | ----- new order and unfinished problems |

* Seoul Tech

1 and 2 are creation myth, 4 and 5 are hero myth. 3 is the bridge that combine the creation and the hero. The myths of <Bepodoeopchim> and <Chonjiwang Bonpuri> explain how the hero got the capability to solve the earthly problems.

The problem of "nature - man" of <Bepodoeopchim> and that of "man - man" of <Chonjiwang Bonpuri> are different but the aspect of the problem-solving is similar. The motif of the beginning of the world is in <Bepodoeopchim> and that of the competition of blooming flower and playing riddles is in <Chonjiwang Bonpuri> only.

For the heavenly beings have different level of order from that of the earthly human beings, they cannot settle the earthly problems fundamentally. We need the heavenly-earthly being to solve the problem: a hero. He needs earthly elements to understand earthly problems, and on the other hand, he needs heavenly elements to have the super power and capability far beyond the earthly man to solve the problem. To have this hero we need a celestial being as his father and an earthly woman who goes through a hard time in this very world as his mother. The self awareness of his existence is like a rebirth and it is we call an initiation.

key words <Bepodoeopchim>, <Chonjiwang Bonpuri>, creation myth, hero myth, initiation, heavenly father, earthly mother